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시카고 연준 총재, 고인플레이션 유도 정책 제안

-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찰스 에반스(Charls Evans)는 미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으로 판단되며,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고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혔.

 - 그는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경기부양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, 이러한 정책이 투명하게 논의된다면 현재의 과도한 저물가 목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함.
 - 또한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 물가수준 타겟팅 또는 일시적인 고물가 정책이 최선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함.
 - 예를 들어 실제물가 상승률이 적정물가 상승률을 하회할 경우 적정물가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적정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정책의 시행을 제안함.

-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앙은행과 대중이 물가 상승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많은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.

 - 에반스의 주장은 버냉키 의장이 낮은 경제성장과 저인플레이션 및 고실업율의 지속으로 연준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제공할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다음 날 발표됨.
 - 벤 버냉키(Ben Bernanke) 연준 의장은 연준의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발언들을 비추어볼 때 에반스의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임.
 - 에반스도 이러한 내용이 이제 막 제안된 것이며 현재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며, 연준이 정책시행에 준비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함.
 - 버냉키 의장은 대규모 자산 매입 또는 장기간의 단기 금리 하향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보다 명시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가능한 정책 방향이라고 언급하였고 금융시장은 11월 연준회의 이후 국채 매입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함.

(Wall Street Journal, 10/17)